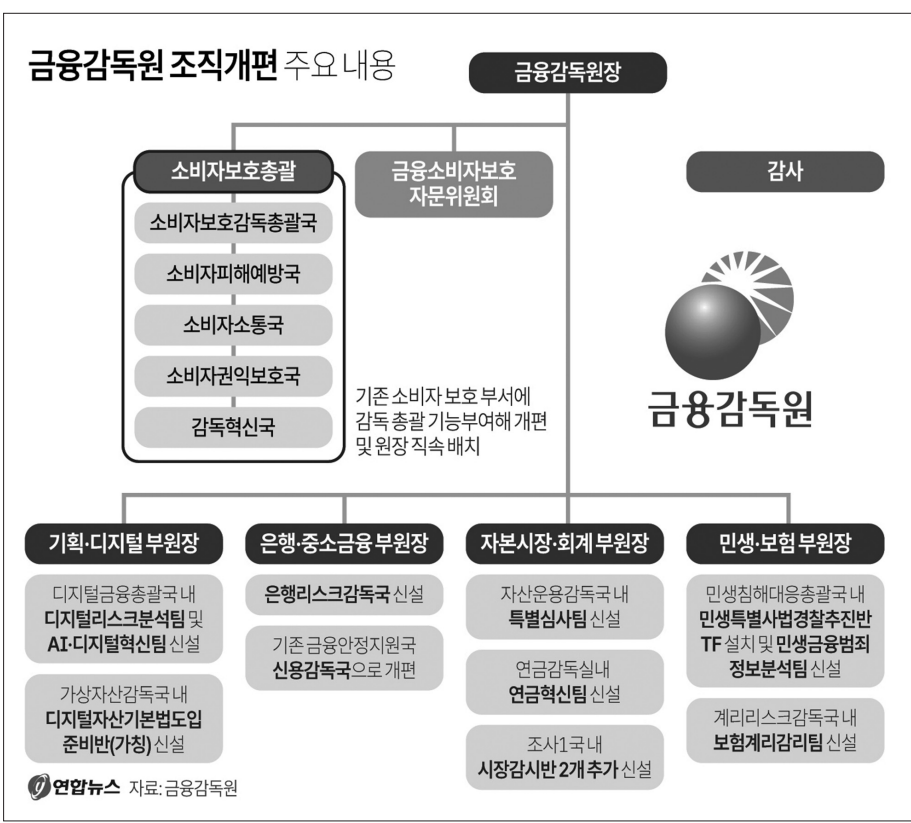


금감원, 고위험 상품 설계·판매 단계부터 차단

금융소비자보호 로드맵 발표…사후구제→사전에방 전환
원장 취임 후 첫 개편…총괄부서 신설·민생범죄 특사경 등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무게 중심을 기존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 삼아 조직과 감독체계를 전면 재편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파생결합상품(DLF)·해외부동산펀드 부실 등 반복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를 계기로, 기존 소비자보호 체계가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치중돼 있었다는 내부 평가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민원, 감독·검사 정보,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해 소비자 위험 요인을 상시 분석하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도입한다.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 급증이나 손실 우려가 포착되면, 전담 협의체를 통해 경영진 면담, 현장 점검, 판매 제한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특히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가 강화된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핵심 위험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고위험 상품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를 의무화한다. 해외부동산펀드 등에는 실사 점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파생

결합증권의 상품 구조 요건도 한층 엄격해진다. 판매 단계에서는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 이해 수준을 고려한 핵심설 명서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관행도 차단한다. 판매 직원의 상품별 사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 된다. 사후 관리 역시 달라진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금융상품은 판매 제한이나 기초서류 변경 권고가 가능해지고, 필요할 경우 소급 적용도 허용된다. 고난도 ELS 상품에는 손실 가능성 도달 이전에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조기경보 알람제’도 도입된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대출금리·수수료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예탁금 이용료 산정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고지의무 폐지, 유료 부가상품 안내 강화 등 불합리한 관행도 손질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 확산에 맞춰 IT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감독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민원·분쟁조정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담당이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박상진 산업은행장 회장 및 관계자들과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전남도-한국산업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산업은행,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정책금융 연계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 유치 본격화
‘5극 3특’ 중소도시 균형성장 산업 전환 모델 시동

전남도가 한국산업은행과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나선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중소도시 균형성장으로 이어지는 산업 전환 모델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핵심으로 한 국정 기조에 맞춰, 전국 최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남과 정책금융을 선도하는 산업은행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과 금융을 결합해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 구축과 지역 기업 성장 지원, 전남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협업 방안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점이 이번 협약의 특징이다. 전남은 최근 해상풍력 1단지가 준공돼 상업운전에 돌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최적지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의 투자도 잇따라 확정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투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해 첨단전략산업 집적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5극 3특’ 전략에 기반한 중소도시 혁신거점을 조성해 균형발전 모델을 확장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이라며 “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에너지가 산업을 이끄는 전남형 성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코스피, 산타 랠리 기대에 4100선 회복 삼성전자 ‘11만 전자’ 탈환·SK하이닉스 급등

코스피가 22일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4100선을 회복했다. 반도체 대형주가 강하게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38p(2.12%) 오른 4105.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타며 전장 대비 75.71p(1.88%) 오른 4096.26에 출발한 뒤 오름세를 유지했고, 장 후반 들어 상승 폭을 더욱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13.87p(1.52%) 오른 929.14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 상승의 중심에는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95% 오른 11만500원에 거래를 마치고 ‘11만 전자’를 되찾았다. 3.20% 오른 10만9700원에 출발한 삼성전자는 장중 11만원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일(11만1100원)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도 전장 대비 6.03% 급등한 58만원에 거래를 마치고 반도체 대형주 전반의 강세를 이끌었다. 이 같은 흐름은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왔던 인공지능(AI) 산업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의론이 잦아들었고, 일본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됐던 글로벌 증시 충격 우려도 점차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관은 1조6038억원, 외국인은 1677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목포서 ‘사랑의 쌀’ 나눔 목포복지재단 통해 취약계층에 쌀 3000kg 전달

농협 전남본부는 22일 목포시청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열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과 김철수 목포복지재단 이사장,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박문옥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취지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된 쌀 3000kg은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광일 본부장은 “농업인의 정성으로 생산된 쌀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에 앞장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 금감원 ‘포용·상생경영’ 우수기관 포상

광주은행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상생 파트너로서 역할을 인정받았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최한 ‘2025년 포용·상생 금융 시상식’에서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지역업체 경영컨설팅’ 부문 기관포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금융감독원 본점에서 개최됐으며 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은행 고재덕 부행장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수상에는 지난 2019년 11월 설립된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지원

지방은행 유일…포용금융센터 원스톱 상담 성과 전문컨설턴트 채용·저신용자 특별대출 지원 집중하는 ‘원스톱 금융종합상담’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센터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매출 증대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채용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금융 솔루션 제공, 다양한 경영 컨설팅 제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 경영컨설팅을 통한 체질 개선과 저신용자 전용 포용금융 특별대출 지원에 집중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현장중심 경영 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역할을 더욱 집중해 지역 기업들의 든든한 상생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 고재덕 광주은행 부행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오른다

국토부, 내년 표준품셈 등 공고
내년 건설공사 단가가 평균 2.98%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이달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항목에서 단위작업당 투입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내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거쳐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사항과 근로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1850개 항목 중 686개는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는 시장가격 등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작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